

##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Choose New Jersey, 미국 뉴저지 주와 한국 우수 연구기관간 양해각서 체결 기념

서울 — 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뉴저지 주립 럿거스대학교와 서울의 서울대학교, 뉴저지공과대학교와 대전의 한국천문연구원, 킨대학교와 송실대학교, 킨대학교와 상명대학교 간 네 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Choose New Jersey 주지사 주재 동아시아 경제 사절단 회의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기존의 연구 및 교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머피 주지사는 “한국 연구기관과 보다 심층적인 양자간 교육 교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한국과 뉴저지 학생들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양국간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은 뉴저지 주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제 혁신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협업을 통해 이들 우수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조성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럿거스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2009년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 위주의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오늘 체결된 MOU 로 교환학생 이외에 교수 방문, 연구 협업으로 파트너십이 확대될 예정이다. 양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 강의와 원격 학습 지원도 장려하고 있다.

안토니오 M. 칼카도 부총장 겸 최고운영책임자와 장지영 국제관계담당 부총장보가 럿거스대학교 대표로 서울에 왔다.

에릭 가평클 럿거스대학교 국제관계담당 부총장은 “서울대학교와의 관계를 확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랫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해온 터라 다른 분야에서의 추가 협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 럿거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사이에는 끈끈한 관계가 있다. 유홍림 총장님은 럿거스대 동문이시고 테레사 조 국제협력본부장님은 럿거스 경영대학원 종신교수”라고 덧붙였다.

테레사 조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은 “럿거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간의 우호 관계는 연구 협업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공과대학교(NJIT)와 한국천문연구원(KASI) 간 MOU 는 태양 물리학 협업 연구를 중점으로 한다. 2014 년 체결된 이 파트너십을 통해 KASI 소속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NJIT 소유의 태양망원경과 실험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NJIT 는 한국인 방문과학자들에게 빅베어태양천문대 20 일 전일 관측을 허가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은 관측 데이터와 전문 지식,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이론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웬다 카오 NJIT 물리학과 교수 겸 빅베어태양천문대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연구기관 사이에 20 여 년간 지속되었던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과학적 발견과 계층 혁신, 교육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KASI 는 NJIT 에서 구축한 세계 최고해상도 태양망원경 중 하나인 구드태양망원경(GST) 건설에 참여한 바 있다. 첫 선을 보인 이래로 GST 는 연구 결과와 첨단 계측 발전의 측면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현재 21 개국 63 개 대학, 기관, 천문대에서 GST 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은 “KASI 는 2001 년부터 태양 물리학 분야에서 NJIT 와 협력하고 있다. 2005 년부터 KASI 와 NJIT 는 세계 최대의 태양망원경인 1.6 미터 구경 태양망원경(신태양망원경(NST)에서 현재의 GST 로 명칭 변경) 건설에 참여했다. 이 협업으로 고해상도 태양관측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KASI 와 NJIT 간의 협의 목적은 지상 태양 활동 연구의 협력 범위를 향후 우주 탐사 시대의 주요 동인이 될 태양-지구 및 행성 물리학을 비롯한 태양물리학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인수 한국천문연구원 부원장은 “KASI 와 NJIT/BBSO 간 협업은 첨단 기술의 개발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과학자들 간의 유의미한 연대를 조성했다”면서 “BBSO 는 고해상도 태양관측 연구를 위한 KASI 의 중요한 해외 협력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KASI 와 NJIT 간의 연구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향후 근접장 우주 환경에서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킨대학교와 송실대학교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강연, 학회 도입 뿐만 아니라 학생, 교수,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MOU 를 채택했다. 킨대학교는 상명대학교와의 추가 MOU 를 통해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물론, 자료 공유, 학생, 교수, 연구자 교류를 강화한다.

라몬트 O. 리폴렛 킨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킨대학교는 송실대학교, 상명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아시아 내 문화교류협업을 확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 훌륭한 학교들을 통해 학생과 교수진에게 공동 연구, 학회, 강연, 세미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킨대학이 확립한 학술 및 문화적 참여도를 확대할 것이다. 뉴저지 도심의 연구중심대학교인 킨대학의 역할과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라는 우리의 중점 과제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고등 교육 분야의 해외 협력을 이끄는 머피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웨슬리 매튜스 Choose New Jersey 사장 겸 CEO 는 “Choose New Jersey 는 해외 협력 및 교육 발전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번 협의로 뉴저지와 한국의 학자들이 힘을 합쳐 공동 연구와 과학 혁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한국 학생들은 물론 뉴저지의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국제 관계를 계속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저지 동아시아 경제 사절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한 취재진은 마헨 구나라트나([mahen.gunaratna@nj.gov](mailto:mahen.gunaratna@nj.gov))와 잉그리드 오스틴([iaustin@choosenj.com](mailto:iaustin@choosenj.com))에게 문의하거나 [choosenj.com/EastAsiaMission](http://choosenj.com/EastAsiaMission) 에 방문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hoose New Jersey 소개**

Choose New Jersey 는 뉴저지 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경제 발전 단체입니다. 뉴저지 경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자본 투자를 촉진합니다. 전 세계에 뉴저지를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놀기 좋은 곳으로 알리고 있으며, 뉴저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주 정부 기관과 민간 파트너 기관의 지원으로 뉴저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밀 유지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choosenj.com](http://choosenj.com)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